서울협의회

자연보호 캠페인

서울협의회(회장·이문원)는 지난 7월 11~12일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동해시 소재 두타산에서 임원연수회 및 자연보호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협의회 회장단 및 임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 동협의회는 임원들의 사기진작과 협의회 활성 등의 안건토의와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를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연보호 홍보 및 쓰레기줍기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대구·경북협의회

제1회 임원연수회

대구 경북협의회(회장·김남환)는 지역환경인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원활한 환경업무정보 교류를 위하여 지난 7월 25-26양일간 경북 소재 대본리 해수욕장에서 제1회 임원연수회를 개최하였다.

동협의회 임원 및 각 지역 지회 회장단과 환경관련 사업체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동행사에는 본연합회 장준영회장을 비롯 50여명이 참가, 동협의회 '92년 사업진행도 및 제반문제에 대해 폭넓게 토의하였다.

연합회 人事

▶ 본연합회는 지난 7월20일자로 사무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사무국장에 석상빈씨 임명.

광주·전남협의회

분진배출피해 분쟁협의

광주·전남협의회(회장·김왕근)는 지난 6월27일 주암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안개 등으로 농사와 축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남 승주 나환자 정착민촌을 실태조사 하고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한 중재 활동에 나섰다.

▲매스컴에서 정착민촌이 주암댐 오염원이라는 일방적 보도로 여론악화와 더불은 자활의욕 저하, ▲댐 건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가축질환 치료제 상습투입으로 인한 사육비 과다부담, ▲이주불안심리 등의 정착민들의 피해 주장에 따라 동협의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관청에 피해 보상 청구 등 안개피해 보상, 등의 중재안을 행정당국에 제시하였다.

한편 동협의회는 지난 7월 17일 배출된 레미콘 분진으로 인한 과수장애와 생활환경 저해에 대한 피해 주민의 진정으로 광주소재 레미콘 배출 당사를 방문하여 대상업체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동협의회는▲일일 수 회에 걸친 콘크리트 분말 이송 저장 과정에서 매회당 30여분씩 다량의 분진 배출, ▲방지시설 기능 미비, ▲배출된 분진이 풍향에 따라 민가와 과수원에 낙진 등의 사전실태 조사와 ▲콘크리트 분진에 의한 과수장애, ▲건축물의 부식, ▲호흡기 장애, ▲눈에 강한 자극성 통증 빈발 등의 주민피해사례를 취합하여 배출당사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동협의회는▲해당사의 환경담당자 면담을 통해 주민 피해 상황을 인식시키고 적정한 분진배출 방지시설을 보완 할 것 ▲지역주민과의 다각적인 유대관계 증진책 구상할 것, ▲방지시설운영에 대한 기술적 자문 요청시 적극적인 지원 등의 중재안을 제시 협의중에 있다.